

#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55-2012\* \*\*

성 기 은

(육군사관학교 정치학부교수, ske917@mnd.go.kr)

황 원 준

(육군사관학교 정치학조교수, hwj900126@mnd.go.kr)

신 건

(육군 소위, insight3245@gmail.com)

- 
- I. 서론
  - II.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
  - III. 연구 설계
  - IV. 실증적 분석 결과
  - V. 결론
-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북한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에 한계가 있으며, 사례 중심의 질적 접근방법으로 인해 주장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국가 간 군사화 된 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분쟁의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여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했다. 1955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월별 북한 대남도발을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

\* 2021년 3월 22일 접수, 보완(2021.7.8.) 후 게재확정(2021.7.27.)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9131)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은 북한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남한과 미국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북한 내부 변수 중에도 북한의 권력 이양은 군사력을 활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절적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된 가운데, 월별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6월 말과 7월 초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대남도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실증적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과 시기를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큰 함의를 갖는다.

키워드 : 대남도발,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계절적 분산

##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북한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6.25 전쟁이후 약 70년의 정전체제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감행해 왔으며,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대남도발의 원인은 크게 외부적 맥락과 내부적 맥락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 대남도발의 외부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남도발을 감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남도발의 내부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한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 도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외부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경우 북한 대남도발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및 한·미동맹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부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경우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중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경우 대남도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조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남도발을 폭 넓게 정의할 경우 북한에 의한 테러, 전파 교란, 해킹 등 북한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공격적 행동을 분석한다. 반면 대남도발을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지역단위의 공격행위만을 분석한다.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유형별 대남도발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남도발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별 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approach)으로 인해 충돌되는 주장들이 혼재한다.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도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을 제시하고 특정 요인이 도발의 중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이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낮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시되기도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한 양적 접근(quantitative approach)을 통해 대남도발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 패턴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남도발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양적 접근을 통해 유형별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대남도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분쟁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국가 간 군사화 된 분쟁(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up>1)</sup>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을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으로 구분했다. 1955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월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대남도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의 단위는 월별 북한의 대남도발이며, 월별로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발생여부를 측정했다. 분석의 모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1) Glenn Palmer, Vito D’Orazio, Michael Kenwick & Matthew Lane, “The MID4 Dataset, 2002-2010: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2 No. 2 (2015), pp. 222-24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실증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중 양적 접근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있다.<sup>2)</sup>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다 분석 대상의 기간이 길며, 보다 엄격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시기를 제공한다. 북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1년 중 몇 월에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유형별 군사도발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했다. 3장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조작화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으며, 4장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중요 변수들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가 주는 의의 및 정책적 대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II.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

### 1. 북한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여러 기존연구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크게 북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했다. 먼저 도발의 북한 국내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들은 북한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모험적인 외교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sup>3)</sup> 이러한 불안정은 지도자의 교체, 정치적 숙청, 식량 부족과

2) Sangbeom Yoo & Sangjin Kim, "The Pattern of North Korea'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1 (2017), pp. 71-84; Ashley A.C. Hess, "Why Does North Korea Engage in Provocations?"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2018), pp. 57-83.

3) Insoo Kim & Minyong Lee, "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같은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자는 국내적인 통제와 인민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대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대한 실험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세습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질을 부각시키는 업적의 선전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그 지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sup>4)</sup>

반면 외부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미국과 남한에 행동과 상황에 따라 북한 도발의 발생 여부가 결정됨을 주장했다.<sup>5)</sup> 이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선거 시기와 여당의 정치 성향이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 양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개 군사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은 당시 북한의 군사도발 증가로 이어졌다.<sup>6)</sup>

Provocations?"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2011), 57-65; Bruce Bennett, "New Ways Are Needed To Deter Provocations," *Global Asia*, Vol. 5 No. 2 (2010), pp. 75-76; Daniel Byman &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2010), 44-74;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0: Provocations and Succession," *Asian Survey*, Vol. 51 No. 1 (2011), pp. 33-40;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pp. 7-58; Ken E. Gause,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Escalation Calculus: Dealing with the Kim Jong-un Regime*, (Alexandria: Center for Naval Analyses, 2015); Yoo & Kim(2017), pp. 71-84; Joonbum Bae, "The North Korean Regime, Domestic Instability and Foreign Policy," *North Korean Review*, Vol. 14 No. 1 (2018), pp. 85-101.

- 4) 김재철,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제도발 억제전략: 핵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2016), pp. 111-130; 김태호·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계의 작동원리." 『국제정치논총』 제58권 2호(2018), pp. 109-143.
- 5) 강창국,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제75호(2010), pp. 295-330; Vito D'Orazio, "War games: North Korea's reaction to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 No. 2(2012), 275-294; 김영준·지효근,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 연구." 『군사연구』 제136집(2013), pp. 271-295; 유상범,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국방연구』 제57권 1호(2014), pp. 61-80; Victor Cha, Na Young Lee & Andy Lim, "DPRK Provocations and US-ROK Military Exercises 2005 to 2016." *CSIS Beyond Parallels*(August 18, 2016); Victor Cha, "North Korean Provocations May Follow ROK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s*(April 12, 2016); Victor Cha, "North Korean Provocations Are Likely Around U.S. Presidential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s*(September 23, 2016); Victor Cha, "DPRK Provocations Possible Around South Korean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s*(September 23, 2020); James M. Acton, "Insight on timing of latest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March 6, 2017); Hess(2018), pp. 57-83.
- 6) 김영준·지효근,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 연구." 『군사연구』 제136집(2013).

또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는 도발의 원인으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모두 제시하였다. 이윤규의 연구는 1953년부터 2010년도까지 주요 도발 사례를 선별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원인으로 대내적인 체제 불만 해소 및 권력 세습에 유리한 여건 조성,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우월적 위상 훼손 및 남북·미북 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관심 요구를 제시하였다.<sup>7)</sup> 탈냉전기의 주요 사례를 분석한 정재욱의 연구는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승계작업 여건조성, 핵능력 발전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sup>8)</sup>

끝으로 일부 기존연구는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 북한 도발의 추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박신영·남궁영의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북한 군사도발을 시계열 그래프로 정리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국내 경제와 최고지도자의 교체, 외부적으로는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sup>9)</sup> 윤안국·안경모의 연구는 1976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노동신문의 보도량을 분석하여 도발의 원인을 내부의 정권안정과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 2. 유형별 대남도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

북한의 대남도발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남도발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의 정전체제 속에서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감행해 왔다. 남북한의 접경지역의 지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교전행위로부터, 핵 및 미사일 시험, 암살, 국제테러, 인터넷 해킹, 전파 교란, 무인기 침범, 위협 성명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남한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취해왔다. 여러 도발 유형 중 일부 연구는

pp. 271-295.

7) 이윤규,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군사』 제91호(2014), pp. 63-110.

8) 정재욱, “탈 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39집 2호(2015), pp. 315-353.

9) 박신영·남궁영,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1호(2019), pp. 3-38.

10) 윤안국·안경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2018), pp. 71-111.

핵 및 미사일 시험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도발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sup>11)</sup> 일부 연구는 해킹 및 전파교란과 같은 비전통적 공격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sup>12)</sup> 특정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도발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실증적 검증을 위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북한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격적 행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다면 잘못된 검정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분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MID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활용했다. MID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도발이라고 규정해 왔던 일부 현상은 대남도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암살, 테러, 사이버 해킹, 전파 교란 등의 공격적 행동은 대남도발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제외되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이 남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남한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MID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군사적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 등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를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두 번째 문제점은 대남도발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도발행위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해 왔다는 것이다. 저강도 분쟁과 고강도 분쟁을 동일한 분쟁 행위로 인식하고 모든 분쟁 행위의 원인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할 경우 매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분쟁을 분석함에 있어 유형별 분쟁의 원인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11)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제55호(2010), pp. 143-163.

12) Gause(2015); 전재성,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전략연구』 제70권(2016), pp. 7-38;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1호 (2016), pp. 63-88;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57호(2013), pp. 273-307; 배달형,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52호(2011), pp. 147-174; Dick K. Nanto,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2003); Hannah Fischer,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2007)

할 수 있다.<sup>13)</sup> 분쟁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은 저강도 분쟁이 촉발되는 데는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고강도 분쟁으로 확대되는 데는 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기도 했으며, 핵무기의 보유는 저강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높이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저강도 분쟁과 고강도 분쟁에서 분쟁 상대국의 대응이 갖는 영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도발행위 역시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위협’ 유형의 도발의 경우 가장 강도가 낮은 형태의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군사작전이나 군사력의 사용 없이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남한에 대한 공격행동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 현시’ 유형의 대남도발은 ‘위협’ 유형의 도발에 비해 강도가 높으며, ‘군사력 사용’ 유형의 대남도발은 남한이 입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군사력 현시’ 보다 강도가 높은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의 강도가 명확히 차이 나는 현상의 원인들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고 분석 할 경우 매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도발에 어떠한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3) William Reed, "A Unified Statistical Model of Conflict Onset and Esca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4 No. 1 (2000), pp. 84-93; Paul K. Huth, & Todd L. Allee, "Domestic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Escalation and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6 (2002), pp. 754-790; Alex Braithwaite & Douglas Lemke, "Unpacking Escal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8 No. 2, (2011), pp. 111-123; Luba Levin-Banchik, "Precrisis military hostility and escalation in international cris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8 No 1 (2021), pp. 63-86.; Victor Asal & Kyle Beardsley, "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4 No. 2 (2007), pp. 139-155.

### Ⅲ. 연구 설계

#### 1. 종속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핵심은 유형별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형별 북한 대남도발의 발생 유무이다. 대남도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 없이는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대남도발이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MID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분쟁 개념을 도입했다. MID 데이터에서는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위협(threat to use of force)’, ‘군사력 현시(display of force),’ ‘군사력 사용(use of force)’, ‘전쟁(war)’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들도 MID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D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분쟁 유형에 따라 유형별 군사도발 사건의 월별 발생 여부를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측정했다. 대남도발의 유형 중 ‘위협’에 해당하는 도발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대외·대남 동향 자료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100’을 통해 남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를 암시한 사례들을 수집 했다.<sup>14)</sup> ‘군사력 현시’ 및 ‘군사력 사용’에 해당하는 도발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북한의 도발 양상 변화와 남북관계연구”에서 사례별 군사행동을 분석하여 수집했다.<sup>15)</sup>

종속변수인 유형별 대남도발 변수의 측정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696개의 관측 값 중 269개(38.7%)의 관측 값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대남도발로 분류하면 ‘위협’은 82개(11.8%)가 나타났다. 이 형태의 도발은 주로 인민무력부, 외무성, 해군사령부 명의의 군사적 위협들이었다.

1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21년 2월 8일);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검색일: 2021년 2월 8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검색일: 2020년 10월 31일)

15) 이호령·이중구·전재우, “북한 도발 양상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8-4070(2018).

‘군사력 현시’는 57개(8.2%)가 나타났다. 교전을 동반하지 않은 북방한계서(NLL) 침범 및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미사일 시험 등이 이 형태의 도발에 해당한다. ‘군사력 사용’은 130개(18.7%)가 나타났다.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와 NLL 지역에서의 교전행위, 게릴라 침투 후 교전행위 등이 이 형태의 도발에 해당한다. 월별로 다양한 유형의 대남도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장 강한 형태의 도발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했다.

## 2. 독립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외부 요인 및 내부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유상범과 김상진의 연구에서 적용한 변수들을 적용했다.<sup>16)</sup> 먼저 북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남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및 한미동맹 관련 변수이다. 남한 및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여당의 정치적 이념으로 측정했다. ‘남한 보수 여당’ 변수의 경우 남한에서 집권한 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이면 ‘1’로 측정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측정했다. ‘미국 보수 여당’ 변수 역시 남한 보수 여당과 같은 방법으로 이분변수로 측정했다. 대남도발과 관련된 남한의 중요 정치 사건은 ‘선거’이다.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변수는 ‘한미연합 훈련’ 및 ‘주한미군 병력 변화’이다. ‘한미연합 훈련’ 변수의 경우 이분변수로 측정했다. ‘주한미군 병력 변화’ 변수의 경우 월 단위의 병력 변화 정보를 제시하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년 단위 변화로 측정했다. 북한 외부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했다.<sup>17)</sup>

북한 내부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로는 ‘북한 권력 이양기,’ ‘북한

16) Yoo & Kim(2017), pp. 71-84.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검색일: 2020년 10월 31일); 국방부, 『국방편년사 1998~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국방부, 『국방편년사 1981~1985』,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국방부, 『국방편년사 1991~1997』,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숙청, '북한 숙청 이후' 세 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권력의 이양 및 숙청 그리고 숙청 이후 기간은 북한의 대남도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수들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은 이분변수로 측정했다. 북한의 월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은 연도별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한 김병연의 연구<sup>18)</sup>에서 정보를 획득했다.

### 3. 통제 변수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북한 외부 및 북한 내부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중요 독립변수 이외에 국제체제와 계절적 요소를 통제변수로 추가했다. 먼저 6·25 전쟁 이후 국제체제를 크게 냉전체제와 탈냉전 체제로 구분하였다. 국제체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변수는 '냉전' 변수로써 1955년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1년 12월까지는 '1'로 이후는 '0'으로 측정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씨와 기온에 영향을 주는 계절적 요인은 군이 작전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혹한기의 낮은 기온과 강설은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계절적 요인이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역시 반란군의 공격이 겨울에는 크게 감소함을 보였다.<sup>19)</sup>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중 하나인 침투의 경우 은폐가 용이하고 기동 간 적 경계부대의 청음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름에 수풀이 우거짐에 따라 위장을 통한 은폐가 쉬우며, 높은 강수량으로 인해 소리에 의한 식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여름에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변수로 '월' 변

18)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북한의 오늘』윤영관 편저, 서울: 늘봄플러스, 2014.

19) Jørgen W. Eriksen & Tormod Heier, "Winter As the Number One Enemy? Lessons Learned from North Afghanistan," *The RUSI Journal*, Vol. 154 Iss. 5(2009), pp. 65-66; Timothy A. Carter & Daniel J. Veale, "Weather, terrain and warfare: Coalition fatalities in Afghanista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0 No. 3 (2013), pp. 220-239.

수와 '월2' 변수를 분석 모형에 추가 했다. '월2'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 이유는 계절적 요소에 의한 북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거꾸로 된 'U'자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기후 상 매년 초와 말은 혹한기이며,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장마 기간이고, 이후로 약 보름동안 혹서기가 찾아온다. 이러한 한반도의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월별 북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은 6월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은 강수량과 기온을 결정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거꾸로 된 'U'자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IV. 실증적 분석 결과

###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월 단위 유형별 북한도발 유무로써, 이분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분 변수로 측정된 종속변수의 특성상 북한도발의 발생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최적화된 분석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다. 1955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월 단위 북한의 대남도발을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 '대남도발'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의 대남도발, 1955~2012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	대남도발
남한 보수 여당	1.088*** (.386)	.267 (.386)	.918** (.403)	1.177*** (.293)
미국 보수 여당	-.092 (.396)	.436 (.343)	-.573*** (.222)	-.375** (.182)
남한 선거	-.770 (.781)	.253 (.622)	-.333 (.505)	-.393 (.385)
한미연합 훈련	.783*** (.298)	-.275 (.351)	-.014 (.236)	.181 (.194)
주한미군 병력 변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북한 권력 이양기	-.800** (.395)	.709** (.357)	-.869** (.430)	-.721** (.283)
북한 숙청	-.179 (.450)	.140 (.432)	.112 (.331)	-.038 (.252)
북한 숙청 이후	.078 (.407)	-.590 (.499)	.612* (.357)	.139 (.321)
북한 경제상황	.045 (.032)	-.001 (.031)	.011 (.024)	.031 (.019)
냉전	-3.808*** (.512)	-1.970*** (.423)	.810*** (.308)	-1.846*** (.280)
월	-.263 (.183)	.360** (.177)	.672*** (.163)	.395*** (.112)
월 <sup>2</sup>	.012 (.014)	-.028** (.014)	-.043*** (.011)	-.029*** (.008)
절편	-.372 (.582)	-2.859*** (.657)	-4.619*** (.631)	-1.005*** (.390)
N	696	696	696	696
Log Likelihood	-181.38	-172.38	-299.34	-415.13
LR $\chi^2(12)$	96.79*** (.000)	55.01*** (.000)	68.10*** (.000)	91.62*** (.000)
Pseudo R2	.281	.126	.107	.106

괄호 안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0.01, \*\* p<0.05, \* p<0.1

표 1에는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및 대남도발 전체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들과 각 회귀계수의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가 나타나 있다. 모형 1은 북한 대남도발의 유형 중 ‘위협’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모형 2는 ‘군사력 현시,’ 모형 3은 ‘군사력 사용,’ 모형 4는 대남도발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각 모형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모든 모형의 우도 비율검정 결과 값(LR  $\chi^2$ )들이 99%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모형의 유사 설명계수(Pseudo R<sup>2</sup>)를 보았을 때,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과 대남도발 전체에 대한 모형 설명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유형별 도발 및 대남도발 전체에 대한 네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도발은 북한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남한과 미국 여당의 정치이념, 한미연합 훈련 및 주한미군 병력 변화 등의 변수의 경우 다수의 모형에서 유의미한 회귀계수 값을 보여주지만, 북한 내부 요인과 관련된 변수 중에는 ‘북한 권력 이양기’ 변수 이외에는 대남도발에 대하여 9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을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및 북한 외부에 대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향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온 남한과 미국 여당의 이념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보수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남한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위협 및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의 보수 여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과 미국의 보수여당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한에 보수 여당이 집권하는 경우 진보 여당이 집권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에 보수 여당이 집권하는 경우 진보 여당이 집권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의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남한 선거’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변수가 전혀 없다. 이 결과는 북한이 남한의 선거 기간 동안 도발을 통해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한미연합 훈련’ 변수와 관련된 분석결과도 매우 흥미롭다. 한미연합 훈련의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중 오직 ‘위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 중 군사력 현시 또는 군사력 사용

은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예측할 수 없지만, 위협은 한미연합 훈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한미군 병력 변화’ 변수의 회귀계수 중 유의미한 변수는 모형 4에서만 나타났다. 주한미군 병력이 증가될 경우 북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귀계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주한미군 병력의 변화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현저한 영향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내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변수들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수는 ‘북한 권력 이양기’이다. 이외의 내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숙청,’ ‘숙청 이후,’ ‘경제상황’ 변수는 모든 유형의 대남도발 및 대남도발 전체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권력 이양기 변수는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권력 이양기에 북한의 위협이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군사력 현시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냉전’과 ‘월’ 변수의 회귀계수를 통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모형 1, 2, 4에 나타난 ‘냉전’ 변수의 회귀계수는 99% 유의수준에서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냉전기와 비교하여 냉전기에 위협, 군사력 현시, 대남도발 전체의 가능성이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모형 3에 나타난 냉전 변수의 회귀계수를 통해 북한은 탈냉전기보다 냉전기에 군사력을 사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냉전기와 탈냉전기 대남도발의 유형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냉전기에는 주로 군사력 사용의 방식을 통해 대남도발을 감행한 반면, 탈냉전기에는 위협이나 군사력 현시의 방식으로 대남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월’ 변수의 회귀계수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절적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의 계절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월’ 변수와 ‘월2’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모형 2, 3, 4에 나타난 ‘월’ 변수와 ‘월2’ 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양수와 유의미한 음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월’ 변수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함의

표 1에 나타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을 설명함에 있어 북한 외부의 요인 중 남한과 미국 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북한의 내부 요인 중 권력 이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한과 미국 여당의 정치 이념과 관련하며 북한은 남한의 보수 여당과 미국의 보수 여당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남한과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남한의 보수 여당에는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 반면 미국의 보수 여당에는 공격적 행동을 회피한다. 남한의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은 ‘전략적 회피’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도리어 미국에게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sup>20)</sup> 미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관심전환 전쟁(diversionary war)의 목표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회피의 논리를 확장하여 북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미국이 취하는 강력한 대응의 목표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미국 집권여당의 정치 이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네 가지의 상황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여당과 미국의 진보 여당, 남한의 보수 여당과 미국의 보수 여당, 남한의 진보 여당과 미국의 진보여당, 남한의 진보 여당과 미국의 보수 여당이 이에 해당한다. 표 1에 나타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남한의 보수 정당과 미국의 진보 정당

20) Benjamin Fordham, "Partisanship, Macroeconomic Policy, and US Uses of Force, 1949-1994."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4 (1998), pp. 418-439.

이 집권하는 경우이며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황은 남한의 진보 정당과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이다. 네 가지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을 예측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남한과 미국 여당의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 대남도발 확률 예측

		남한 여당	
		진 보	보 수
미국 여당	진 보	.501 (.387~.613)	.765 (.668~.862)
	보 수	.408 (.310~.507)	.691 (.572~.811)

괄호 속 95% 신뢰구간

주: 대남도발 확률예측은 표 1의 모형 4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음. 남한과 미국의 여당 이외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통제된 가운데 계산되었음. 탈냉전기, 남한의 선거기간 및 연합훈련 기간이 아니며, 북한의 권력 이양기 및 숙청기간이 아님. 기타 변수는 평균 값.

표 2는 기타 조건들을 모두 동일하게 고정된 가운데 남한과 미국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남한의 보수 정당과 미국의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 예측된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765)이 가장 높으며, 남한의 진보 정당과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예측된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40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보수 여당과 미국의 진보 여당 상황에서 예측된 도발 확률이 남한의 진보 여당과 미국의 보수 여당 상황에서 예측된 도발 확률에 비해 87.5%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미국 집권여당의 정치 이념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내부 요인 중 북한 대남도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북한 권력 이양기’가 제시되었다. 권력 이양기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권력 이양과 북한의 대남도발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충돌되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권력 이양과 대남도발의 긍정적 상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한의 권력 이양 기간 동안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빈번한 대남도발로 연결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sup>21)</sup> 반면, 극심한 경제난이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국내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국제분쟁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한다.<sup>22)</sup>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권력 이양 여부가 대남도발 확률에 주는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북한의 권력 이양에 따른 북한 대남도발 유형별 확률 예측

	Pr(Y   권력 이양기 X)	Pr(Y   권력 이양기 O)	Δ %
Y= 위협	.175	.087	-50.3%
Y= 군사력 현시	.161	.281	+74.5%
Y= 군사력 사용	.041	.018	-56.1%
Y= 대남도발	.408	.251	-38.5%

주: 대남도발 확률예측은 표 1의 모형 1, 2, 3, 4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음. 북한 권력 이양기 이외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통제된 가운데 계산되었음. 탈냉전기, 남한의 진보여당과 미국의 보수여당, 남한의 선거기간 및 연합훈련 기간이 아니며, 북한의 숙청기간이 아님. 기타 변수는 평균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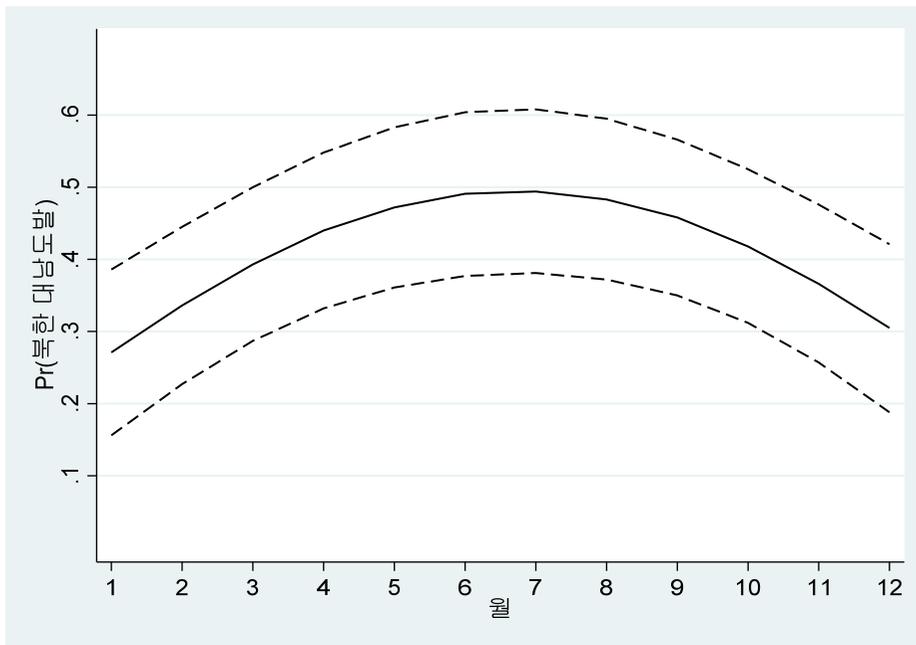
표 3은 북한의 권력 이양 변수의 변화에 따른 대남도발 전체의 확률 변화와 함께, 유형별 대남도발의 확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권력이양은 ‘위협’ 유형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약 50% 낮추는 효과 있지만, ‘군사력 현시’ 유형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약 75%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군사력 사용’ 유형의 도발은 약 56% 낮추는 효과가 있다. 권력 이양 변수가 유형별 군사도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군사력 현시’에만 양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 북한의 국내정치적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에게는 외부 세계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내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위협은 국내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은 외부 세계를 자극하여 국내정치가 더 불안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권력 이양시기 북한이 선택한 최선의 전략은 중간 단계의 군사도발

21) Bennett(2010), pp. 75-76.; Byman & Lind(2010), pp. 44-74; Beck(2011), pp. 33-40; Gause(2015), 22) Bae(2018), pp. 85-101.

유형인 ‘군사력 현시’를 통해 국내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외부 세계를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한 계절적 분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계절적 요인의 외생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에도 ‘월’ 변수와 ‘월2’ 변수는 북한의 대남 ‘군사력 현시’ 및 ‘군사력 사용’ 그리고 ‘대남도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을 예측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월별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 예측



실선은 예측된 확률, 점선은 95% 신뢰구간

주: 대남도발 확률예측은 표 1의 모형 4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음. ‘월’ 과 ‘월2’ 이외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통제된 가운데 계산되었음. 탈냉전기, 남한의 진보여당과 미국의 보수여당, 남한의 선거기간 및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 아니며, 북한의 권력 이양기 및 숙청기간이 아님. 기타 변수는 평균 값.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6월과 7월인 것을 알 수 있으며,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대남도발의 확률은 거꾸로 된 ‘U’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월’ 변수와 ‘월2’ 변수를 이용하여 제시된 그림 1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말과 7월 초는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1, 2월이나 11, 12월은 한반도의 혹한기로서 기온이 매우 낮으며, 장마철인 7월 말에는 강우량이 매우 많다. 또한 혹서기인 8월은 기온이 높아 군사작전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절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6월 말과 7월 초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시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군사작전을 하는데 제한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표 1에도 제시되어 있다. ‘월’ 변수와 ‘월2’ 변수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협 유형의 대남도발은 군사적 작전이 필요 없다. 따라서 기온이나 강우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의 대남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을 전개하거나,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군사력 현시’ 및 ‘군사력 사용’ 유형의 대남도발에는 ‘월’ 변수와 ‘월2’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대남도발의 원인을 분석했다. 조작적 정의를 위해 MID의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대남도발을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으로 분류했다. 기존연구에서 대남도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요인들을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들이 월별 북한의 대남도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실증적 분석결과 북한의 대남도발은 내부적 맥락보다는 외부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조성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의해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결정된다. 남한의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감소한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보수 야당에 의해 형성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다르게 반응한다. 남한의 보수 여당에게는 공격적 행동을 하지만, 미국의 보수 여당에게는 공격적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변수로 지목된 한미연합훈련은 다른 종류의 군사도발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 ‘위협’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내부적 요인으로서 ‘북한 정권 이양기’는 ‘위협’이나 ‘군사력 사용’과 같은 대남도발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체제의 안정을 회복하고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 현시’를 활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은 늘어난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된 ‘월’ 변수와 ‘월2’ 변수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대부분 통제된 가운데에도 두 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군사력 현시’에 대한 모형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모형에서 모두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상 ‘월’과 관련된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는 한반도의 기후이다. 강수량과 기온 등을 고려했을 때, 군사작전에 가장 적합한 기간이 6월 말부터 7월초이기 때문에 ‘군사력 현시’나 ‘군사력 사용’ 유형의 대남도발은 해당 기간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은 강력한 계절적 분산을 따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실증적 연구이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 중에도 실증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유상범과 김상진의 연구는 지난 63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북한의 지역 군사도발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sup>23)</sup>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지역 군사도발의 개념적 정의가 다소 미흡하며, 유형별 도발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Hess의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sup>24)</sup>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매우 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남도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을 유형별로 분류했으며, 약 60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형별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23) Yoo & Kim(2017), pp. 71-84

24) Hess(2018), pp. 57-83.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 대남도발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함의를 준다. 북한 대남도발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의 경우 불리한 국제정치적 환경이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의 경우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극복한다거나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이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의 외부적 요인이 내부적 요인과 비교하면 대남도발의 가능성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한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북한 외부의 상황이 대남도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요인 중에도 권력의 이양과 같은 중요 사건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의 분포가 계절적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북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지만, 계절적 요인은 정치사회적 요인들과는 구분되는 매우 외생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월’과 ‘월 2’ 변수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강수량과 기온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대남도발과 계절적 요인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 계절적 요인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북한 대남도발 대비에 대한 정책적 발전 방향은 매우 명확하다. 첫째,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보수 여당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 남한의 보수 여당과 미국의 진보 여당에 의해 조성되는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해당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력한 계절적 요인에 의해 대남도발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대남도발 대비책을 수립할 때 기온과 강수량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혹서기 및 혹한기, 장마 기간을 회피하며 군사작전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에서 도발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들이 각각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 사건들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시되어 왔다. 국제 분쟁 사건들이 특정 두 국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라이벌 연구들이 있으며<sup>25)</sup>, 국제분쟁을 사건의 촉발(onset)과 확대(escalation)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sup>26)</sup> 이 연구들은 각 분쟁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벗어나 과거의 분쟁 사건이 미래의 분쟁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들 역시 각 개별 사건들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분쟁 사건 자체가 갖는 역동성으로 인해 과거의 대남도발사건이 미래의 대남도발사건의 횡수와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대남도발이 미래의 대남도발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도발의 촉발과 도발의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Diehl & Goertz(2001); Douglas Lemke & William Reed, "War and Rivalry among Great Po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2 (2001); Brandon C. Prins, "Interstate rivalry and the recurrence of crises: a comparison of rival and nonrival crisis behavior, 1918-1994," *Armed Forces & Society*, Vol. 31 No. 3 (2005), pp. 323-351; Thompson(2001), pp. 557-586.

26) David Kinsella & Bruce Russett, "Conflict Emergence and Escalation in Interactive International Dyad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4 No. 4 (2002), pp. 1045-1068; Reed(2000), pp. 84-93; Huth & Allee(2002), pp. 754-790; Braithwaite & Lemke(2011), pp. 111-123; Benjamin E. Goldsmith, "Different in Asia? Developmental States, Trade, and International Conflict Onset and Esca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3 No. 2 (2013), pp. 175-205; Levin-Banchik(2021), pp. 63-86.

<Abstract>

## **A Study on Causes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 Empirical Evidence 1955–2012**

Sung, Ki-eun

Associate Professor in Korea Military Academy

Hwang, Won-june

Assistant Professor in Korea Military Academy

Shin, Geon

Second Lieutenant, Republic of Korea Arm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each type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Existing studies on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have several limitations originated from a weak operationalization for key concepts and focusing on an individual case based on qualitative approach. For improving an understanding about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this study applied a concrete concept developed by th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MID) dataset for key concepts. Monthly North Korean provocations from 1955 to 2012 were categorized into 'threat,' 'display of force,' and 'use of force' for empirical analysis. Our logistic regression test results showed that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factors strongly determine the provability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However, 'leadership turnover' variable, as an internal factor, significantly decreases a chance of use of force type provocation. One of interesting findings in our empirical test results i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clearly follows a seasonal distribution. Under control of

key independent variables, we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provocations is heightened at the end of June and at the early of July. In this work, we conducted the most comprehensive empirical test against data about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As a policy implication, this work suggests a temporal period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a defense readiness against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Key Word: Provocation, Internal Factor, External Factor, Seasonal Distribution

## 〈참고문헌〉

- 강창국,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제75호(2010), pp. 295-330.
-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pp. 7-58.
-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1호 (2016), pp. 63-88.
- 국방부, 『국방편년사 1998~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국방편년사 1981~1985』,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_\_\_\_\_,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_\_\_\_\_, 『국방편년사 1991~1997』,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북한의 오늘』 운영관 편저, 서울: 늘봄플러스, 2014.
- 김영준·지효근,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 연구.” 『군사연구』 제 136집(2013). pp. 271-295.
- 김재철,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재도발 억제전략: 핵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 도발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2016). pp. 111-130.
- 김태효·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국제정치 논총』 제58권 2호(2018), pp. 109-143.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21년 2월 8일)
- 박신영·남궁영,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1호(2019). pp. 3-38.
-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57호 (2013), pp. 273-307.
- 배달형,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52호(2011), pp. 147-174.
- 유상범,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국방연구』 제57권 1호(2014), pp. 61-80.

윤안국·안경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2018), pp. 71-111.

이운윤규,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군사』 제91호(2014). pp. 63-110.

이호령·이중구·전재우, “북한 도발 양상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8-4070(2018).

전재성,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전략연구』 제70권(2016), pp. 7-38.

정재욱, “탈 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39집 2호(2015). pp. 315-353.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검색일: 2021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검색일: 2020년 10월 3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검색일: 2020년 10월 31일)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2010), pp. 143-163.

Alex Braithwaite & Douglas Lemke, "Unpacking Escal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8 No. 2, (2011), pp. 111-123.

Ashley A.C. Hess, "Why Does North Korea Engage in Provocations?"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2018), pp. 57-83.

Benjamin Fordham, "Partisanship, Macroeconomic Policy, and US Uses of Force, 1949-1994."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4 (1998), pp. 418-439.

Benjamin E. Goldsmith, "Different in Asia? Developmental States, Trade, and International Conflict Onset and Esca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3 No. 2 (2013), pp. 175-205.

Brandon C. Prins, "Interstate rivalry and the recurrence of crises: a comparison

- of rival and nonrival crisis behavior, 1918-1994." *Armed Forces & Society*, Vol. 31 No. 3 (2005), pp. 323-351.
- Bruce Bennett, "New Ways Are Needed To Deter Provocations." *Global Asia*, Vol. 5 No. 2 (2010), pp. 75-76.
- Daniel Byman &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2010), 44-74.
- David Kinsella & Bruce Russett, "Conflict Emergence and Escalation in Interactive International Dyad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4 No. 4 (2002), 1045-1068.
- Dick K. Nanto,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2003)
- Douglas Lemke & William Reed, "War and Rivalry among Great Po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2 (2001), pp. 457-469.
- Glenn Palmer, Vito D'Orazio, Michael Kenwick & Matthew Lane, "The MID4 Dataset, 2002-2010: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2 No. 2 (2015), pp. 222-242.
- Hannah Fischer,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2007)
- Insoo Kim & Minyong Lee, "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2011), 57-65.
- Joonbum Bae, "The North Korean Regime, Domestic Instability and Foreign Policy." *North Korean Review*, Vol. 14 No. 1 (2018), pp. 85-101.
- Jørgen W. Eriksen & Tormod Heier, "Winter As the Number One Enemy? Lessons Learned from North Afghanistan." *The RUSI Journal*, Vol. 154 Iss. 5(2009), pp. 64-71.
- Ken E. Gause,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Escalation Calculus: Dealing with*

- the Kim Jong-un Regime*. (Alexandria: Center for Naval Analyses, 2015)
- Luba Levin-Banchik, "Precrisis military hostility and escalation in international cris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8 No 1. (2021), pp. 63-86.
- James M. Acton, "Insight on timing of latest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March 6, 2017)
-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0: Provocations and Succession." *Asian Survey*, Vol. 51 No. 1 (2011), pp. 33-40.
- Paul F. Diehl &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 Paul K. Huth, *Standing Your Ground*.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 1996).
- Paul K. Huth, & Todd L. Allee, "Domestic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Escalation and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6 (2002), pp. 754-790.
- Sangbeom Yoo & Sangjin Kim, "The Pattern of North Korea'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1 (2017), pp. 71-84.
- Timothy A. Carter & Daniel J. Veale, "Weather, terrain and warfare: Coalition fatalities in Afghanista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0 No. 3 (2013), pp. 220-239.
- Victor Cha, Na Young Lee & Andy Lim, "DPRK Provocations and US-ROK Military Exercises 2005 to 2016." *CSIS Beyond Parallel*(August 18, 2016).
- Victor Cha, "North Korean Provocations May Follow ROK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April 12, 2016).
- \_\_\_\_\_, "North Korean Provocations Are Likely Around U.S. Presidential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September 23, 2016).
- \_\_\_\_\_, "DPRK Provocations Possible Around South Korean Elections." *CSIS*

*Beyond Parallel*(September 23, 2020).

Vito D'Orazio, "War games: North Korea's reaction to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 No. 2(2012), 275-294.

Victor Asal & Kyle Beardsley, "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4 No. 2 (2007), pp. 139-155.

William Reed, "A Unified Statistical Model of Conflict Onset and Esca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4 No. 1 (2000), pp. 84-93.

William R. Thompson,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2001), pp. 557-586.